

4) 교회 돌봄

1. 중보기도

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1) 다락방 식구들이 다락방 모임에 모두 다 참여하게 하소서
- 2) 성전건축(교회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1) 허가 -> (2) 구입 -> (3) 공사 -> (4) 이전
- 3) 교회의 사역들이 새로워져 새신자들을 많이 맞도록
- 4) 환우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다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② 각 다락방이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 1) 니카라과(박태진선교사, 정석훈선교사 / 섬김 다락방)
내전이 속히 종결되어 안전하게 사역하시도록
- 2) 헝가리(김홍근선교사 / 은혜 다락방)
루틴 사역을 통해 난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 3) 필라델피아(김앤디선교사 / 반석 다락방)
가을 학기가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 4) 말레이시아(이경근선교사 / 포도가지 다락방)
안식년 이후에 시작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 5) 우크라이나(박운갑선교사 / 믿음 다락방)
겨울 전에 교회의 보수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2. 사역나눔(주보참고)

- ① 이번 달에 다락방이 동참할 교회행사와 광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② 이번 달에 우리 다락방에서 섬겨야 할 교회 봉사는 무엇입니까?

5) 모임 마침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헌금을 드린 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다락방 모임 나눔지

1) 경배 찬양

아래의 찬양곡 중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해서 찬양합니다.

복음 성가	찬 송 가
높고 높은 보좌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 신실하신 주 (447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78장)

2) 마음 열기

성전건축(교회이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제목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세요. ^^

3) 설교 나눔

▶ 에베소서 4장 13-16절

“주님이 세운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설교 문제>

- 1)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의 ()를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엡 4:13&15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의 목표는()이다.
- 2)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의 훈련과 ()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 3) 2016년도부터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주님의 몸 된 ()를 세워간다.” 이다.

<설교 적용>

1. 만약 나에게 만약 프랑스의 곡예사, 찰스 블론딘이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널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2.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진리는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은 너무나 연약해 진다.” 는 존 스토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분명한 사실을
머리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슴으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온 몸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분명 하게 믿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이다.

<설교 메모>

<설교 계획>

- 11 월 04 일 에베소서 4 장 13-16 절 우리가 세운 교회
- 11 월 11 일 빌립보서 1 장 1 - 6 절 감사하며 행복한 교회
- 11 월 18 일 야보고서 3 장 17-18 절 감사하며 화평한 교회
- 11 월 25 일 사도신경(12)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 12 월 02 일 사도신경(13)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
- 12 월 09 일 사도신경(14)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 12 월 16 일 사도신경(15)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 12 월 24 일 성탄주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미정)
- 12 월 30 일 사도신경(16)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